



다음 날, 회식 자리

하나랑 싸우려고 한 게
아닌데. 말이 왜 그렇게
나가는지…

나도 그래. 자식한테 기대가
있으니까 더 화가 나지.
내 욕심을 내려놔야 하더라고.

고등학생이나 돼서 희망
진로가 없다는데 아무 말
안 할 수도 없고…

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지
못한 거니까 같이 찾아야지!
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!

그날 밤

어제는 미안했어. 아빠도
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 한 건데…
아이스크림 먹고 화 풀어.

하나는 뭐할 때
즐거워?

음… 맛있는 식당,
예쁜 카페를 친구들한테
알려주는 게 즐거워.

잘할 수
있는 일은?

갑자기 그런 건 왜
물어? 생각해 봐야
알 것 같은데?

‘나에게 즐거운 일, 잘할 수
있는 일’을 찾는 건 진로
탐색의 시작이 될 수 있어!

하나한테 알맞은
진로가 뭘까?

아빠도 같이
찾아볼게!!

하, 하나야?!
아빠랑 더
이야기해야지~

그래? 내가 즐거운 일,
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
고민해 볼게~

드림레터 7호에 계속